

# '거짓 나'를 죽이고 '참 나' 되살려

## 서울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동참기

서울 보림사(조실 목산)는 7월 30일 오후 8시부터 8월 5일 오전 7시까지 보림선원 선방에서 제69회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를 개최했다. 3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법회는 거사선풍(居士禪風)을 일으킨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테이프 법문 듣기와 좌선을 병행하며 1주일간 자지 않고 참선하는 수행프로그램이다.

보림회의 철야정진은 백봉 거사가 1963년 '무자(無字)' 화두를 타파하여 확철대오 한 후 재가 수행자를 개오(開悟)시키는 방법으로 주말 및 일주일~열흘씩의 철야정진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74년 여름 철야정진 때부터 정기적으로 시행됐다. 백봉 거사는 85년 여름 23회까지 직접 제자들을 지도했으며, 입적한 이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이다.

보림선원에서 철야용맹정진을 함께 하며 재가 수행자들의 발심과 고통의 극복, 새로운 발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했다.



보림선원 조실 목산 스님(오른쪽 위)의 지도 아래 좌선 및 법문듣기(왼쪽 위), 운력(오른쪽 아래), 회향 소고발표(왼쪽 아래) 등이 진행됐다.

**#첫째날, 발심 혹은 두려움 안고**  
입재식=7월 30일, 광주, 당진, 춘천, 평택 등 전국 각지에서 21명의 재가 불자들이 7일용맹정진에 도전하기 위해 보림선원의 긴 계단을 올라온다. 휴가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고행의 문에 들어선 이유는 뭘까. 사실은 고행이 아니라 참으로 쉬기 위한 것이다. 세속의 욕망은 물론 온갖 분별·망상을 내려놓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에 대한 갈망마저 쉬기 위해 북한산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가슴속에는 해내고 말겠다는 발심과 함께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엄습한다.

진을 해본 경험이 없는 몇몇 불자들은 수시로 다리를 바꾸고 허리를 움직여가며 고통을 참아본다. 역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운력과 아침공양 시간. 도량 곳곳을 청소하고 간단한 세면을 한 후 먹는 아침 공양은 끝났다. 좌선은 다시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좌선과 '화두드림' 법문, 두 시간의 좌선이 이어진다. 점점 다리가 아파오고 점심공양은 입맛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몸이 부대간다는 느낌이다. 오후 1시부터 설법과 좌선 시간이 반복된 후, 오후 5시 15분부터 공양을 하고 1시간 동안의 저녁예불과 포행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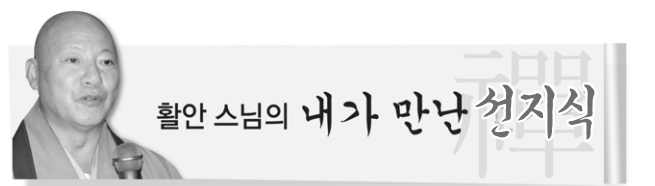
자정의 차담시간은 역시 반갑다. 수박 파더로 따먹고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잠시나마 달콤한 행복 감에 젖어든다. 다가오는 두번째 새벽이 아직은 두렵다.

**#셋째날, 수미와의 첫 번째 격전**  
=일정은 여제와 다를 없지만, 몸에서 느끼는 반응은 다르다. 좌선 도중, 간혹 '쿵' 하고 땅바닥에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수행자가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전후좌우로 넘어지는 소리다. 철야정진시에 첫 번째 관련에 해당하는 날이 3일째다. 기자는 1년전 집에서 혼자 1주일 철야정진에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3일째 항복하고만 적이 있다. 수마(睡魔)와 관절염이 생기는지 걱정되지만, 기자는 자세를 수시로 가다듬으며 헛바닥을 입전정에 붙이고 호흡을 가늘고 길게 단전까지 내리며 '이뭇고?' 화두를 쟁긴다. 수마의 공격법을 미리 체험했기에 관문을 넘어선다.

**#넷째날, 지친 몸 어디서 솟아나**  
는 기운일까=새로운 화두를 뜻하는 '새말귀(우리 몸중어리 자체에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법신(法

身)이 색신(色身)을 통해 삶을 굴린다는 사실을 알아서 곧바로 믿고 실천하는 화두법) 등의 법문과 좌선이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셋째날의 고비를 넘긴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운문에 기(氣)가 넘친다. 지친 몸에서 솟아나는 알 수 없는 기운은 무엇일까. 본래부터 내면에 갇혀진 맑고 밝은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정진할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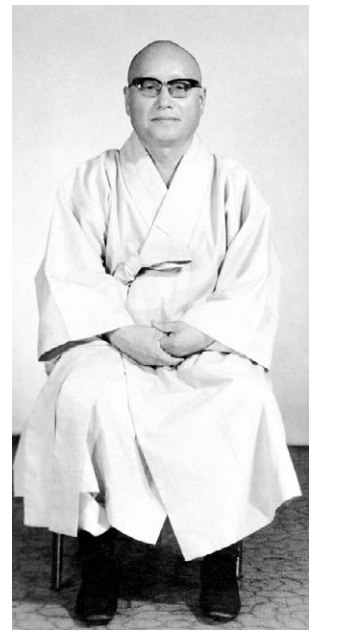
**#다섯째날, 격정되는 관절부위, 그러나 커지는 자신감**=연일 좌선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신체부위는 관절 쪽이다. 인대가 늘어나거나 관절염이 생기지는 않을까 조금씩 걱정이 들기도 한다. 1주일에 한번씩 하는 주말철야정진의 경우와 달리, 1주일 연속 정진은 허리와 무릎 등에 부담을 준다. 큰스님들이 "공부하다 죽는 놈 없다"는 경책이 새롭다. 생사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발심으로 용맹심을 내면서도 육신을 걱정하는 이 중생심은 또 뭘까. '부처님께서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中道) 수행



### (5)탄허 대종사①

탄허 스님은 김제 만경출신이 다. 여섯 살부터 16세까지 아버지 홍규씨와 할아버지 병일씨로부터 유학을 공부하고, 17세에 충남 보령 기호화과 이극중 선생으로부터 <예기>와 <춘추좌전>을 공부하였다.

20세가 되자 <도덕경>과 <남화 장자경>을 공부하다가, '도(道)'라는 말에 걸려 오대산 방한암 스님께 서신으로 문답, 30년 동안 20여 차례 서신을 주고받다가 22세에 출가, 3년 묵은 후 24세부터 중강을 시작해 금강·기신·범망경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27세가 되던 해부터 한암 스님의 증명하에 대교과



“유·불·선 3교의 글을 물 흘러가듯 써  
폭포수처럼 읽다가 장강수처럼 해설”

강주가 되어 <신화영경합론> 47권과 사집·사교·사미 등 불교 내전 총 14종 70여 권을 현토 번역하였다.

항상 필과 글을 통해서 언어 이전, 생각 이전의 '도'를 연상할 수 있게 하였다.

필자는 1958년 스님의 세수 46세 되던 해 오대산 수도원에 행자로서 입원하였는데, 겨우 한 달도 못되어 상원사 선방으로 이전하였다. 57년 11월부터 대 처·비구 분장으로 교육불사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60년 해동불교역경원에서 <육조단경>을 간행하고, 1963년 <보조법어>를 내었을 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생들과 함께 동참하고 구하기 힘든 불서를 얻어 환희했던 생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또 개운사, 청룡사에 가서 화엄경에 대하여 물으니,

탄허 스님은 조그마한 키에 둥글둥글한 모습은 마치 탕화 속의 아난 존자를 연상케 하였다. 강단에 서시면 큰 토틀에 유·불·선 3교의 글을 물 흘러가듯 써내려 가는데, 폭포수처럼 읽어다가 장강수처럼 해설하였다.

“자네가 19신장의 호호를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8부신장의 보호를 받으면 전륜성왕이 될 수 있으며, 12천신들의 공경을 받을 수 있으면 3계의 도사가 될 수 있지.”

“천하에 필급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태산보다 작은 것이 없다. 옛(古)이 옛이 아니고, 지금(今)이 지금이 아니다. 천지와 만물이 일체가 되면 시간도 공간도 인간도 그 시종(始終)을 말할 수 없고, 그 광협(廣狹)을 헤아릴 수 없다.”

하였다. 그 뒤에도 이러한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잘 잊혀지지 않는 것은 1950년대 월정사에서 있었던 만두와 국수 공양이다.

이것은 장자의 한 구절이지만 불교의 공적영지(空寂靈智)의 사상과 일치하므로, 스님께서는

월주에 살고 있던 한 거사가 매년 막내아들 생일불공을 드리려 할 한가마니에 본인 월급 한 달 치를 쓰는 부인이 미워 욕을 하였는데, 마지막 불공을 드린 보살님께 도리어 스님께서서 야단을 치셨다고 한다. <계속>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 2008년도

##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3기생을 모집함

### 2. 불교학과

<b>교과목 및 교수</b>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법회사상 · 반야사상 · 회회사상 · 불교성립론 · 불교사회복지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 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최중석(금강대학교수) · 주명철(동방대학교수) · 박종(동산불교대학교수) 외 교계석학
-----------------	--	--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b>현재 접수중</b> 입학금 250,000원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통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 3. 웰빙의 상징 사찰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찰음식문화학과(1년과정) 신입생 모집

웰빙시대가 요청하는 사찰음식의 정신은 생명존중의식과 수행식으로, 사찰음식의 체계적 연구 및 사찰음식의 전문가 양성,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도 교육합니다.

과정	기간	요일	내용	지도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30명)	기본과정 1년(2학기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전통음식과 대중음식 조리법 교육 · 사찰음식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 교육 · 사찰의 절기에 맞는 실습 교육	정산스님 외 교계 전문스님과 교수진

•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후 2시

### 4. 9월 개강학과

학과	교과목	교수
<b>불교한문학과(3년)</b>	· 주역(1), 주역(2), 삼국유사(1,2), 중국고전(1,2) 한국고전(1) · 불교경전(1,2), 한자학원론, 설문해자	임채우(원광대학교수), 심재동(동국대학교수), 김형중(동대대학교수) 심경호(고려대학교수), 최정준교수
<b>불교다도학과(3년)</b>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엔), 제다학(1) (2), 차도문헌, 차수행법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진영교수, 정경스님, 오양교수, 김진수교수
<b>불교미술학과(3년)</b>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원,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김익홍(동산불교대), 법인스님
<b>불교장례문화학과(2년)</b>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장례 등	김미혜교수
<b>요가심밀학과(2년)</b>	· 요가이론, 요가행리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아사나실습, 삼밀수행법	안지용교수
<b>사찰음식문화학과(1년)</b>	· 사찰음식(삼),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 5.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한문학과(영구정원30명) · 불교다도학과(영구정원50명) · 불교미술학과(영구정원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영구정원30명) · 요가심밀학과(영구정원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영구정원3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8년 8월 1일 ~ 2008년 9월 9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장례문화학과)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요가심밀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사찰음식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6. 개강일시  
한문학과: 9월 5일(목), 다도학과: 9월 9일(화), 불교미술학과: 9월 9일(화)  
불교장례문화학과: 9월 9일(화),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 3일(수), 요가심밀학과: 9월 7일(일)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